

# 무한경쟁 시대의 DB산업



김진형 / 연구개발정보센터 소장

**설** 마설마 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IMF 사태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징조가 보였었고 작년 초부터는 자주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건만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 우리의 꿈과 희망도 삼킬 것 같은 기세로 직장과 가정을 덮치고 있는 이 고난의 가까운 원인으로는 외환 관리를 못했다는지 대통령이 무능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 내어 놓을 만큼 굳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단일시장, 무한 경쟁의 살벌한 전쟁터를 연출하고 있다. 지금 이 사태가 전쟁, 즉 경제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부 학자들은 정보화 사회를 제3차 자본주의 시대라고 한다. 1차 자본주의 시대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있었던 중상주의를 일컫는다. 이 시대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이 세계사의 중심에서 항해술과 총포술로 세계를 지배하여 식민 영토를 확대하고 상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2차 자본주의 시대는 증기기관, 동력, 수송기계 등의 기술과 자본, 노동의 결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상품을 생산하는 선진국과 원자재를 공급하고 소비재의 시장 역할을 하는 후진국이 확실히 구분되었다.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세계사의 중앙 무대에 올랐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우리나라도 이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보화 사회를 맞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이룩한 경제적 고도 성장은 과연 자랑할 만 하다.

이러한 배경을 거쳐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점으로 시작된 WTO 체제는 세계 단일 시장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2차 자본주의 시대에서 상품의 자유왕래를 추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서비스의 자유왕래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보험, 은행, 병원 산업은 물론 교육, 문화까지도 개방하라고 압박한다. 일등만이 살아 남는 정보산업의 특성과 어울려 WTO체제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무한 경쟁의 상황을 연출한다.

이 시대의 성장 엔진인 핵심 기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다. 컴퓨터는 중상시대의 총포와 산업혁명시대의 증기기관에 해당한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초고속 통신을 잘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국가적 총력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산업에 동원함으로써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비록 국민소득에서는 한참 뒤지만 정보화 산업의 기지로 발전하는 인도의 도약도 눈 여겨 볼만하다.

정보산업은 일등만이 살아 남는 살벌한 전쟁터이다. Winner-Takes-All이란 어휘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비정의 세계이다. 장치산업이나 제조업에서는 2등을 해도 살아 남을 수 있다. 값을 조금 저렴하게 한다던가 상품의 이동에 드는 경비의 차이를 적극 활용하면 생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생산물은 복제와 수송에 경비가 들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복제는 이제 매체 값도 안 드는 현실이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통신의 비용은 이제 거의 제로에 접근하고 있다. 일등을 못한다면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였다 하더라도 성공은 물론 본전도 찾을 길이 없다.

정보산업의 특징이 이러하므로 정보산업의 투자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철저한 기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국력을 정보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많은 투자를 하여 2등을 양산한다면 큰 낭패다. 투자의 집중이 중요하다. IMF 사태로 인하여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한 두개라도 일등을 만들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적지 않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 성공한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볼 수가 없다. 공공 DB사업을 벌여서 초기 투자를 해 주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건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고객이 돈을 내고 사용할 만한 경쟁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도 계속적인 현행화가 안되어 그 사용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고객은 철저한 분석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기획했거나 개발비를 사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재정이 매우 쪼들리는 IMF 상황에서는 지난날과 같은 정부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즉 만들면 돈 벌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찾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 팔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면 더욱 좋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컴퓨터 통신망의 보급률, 정보의 재산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풍토 등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성장하기에는 도양이 척박하다. 무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쉽게 모아지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이점, 필요성들을 충분히 계몽하여 데이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다.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는 공무원, 문헌 자료를 다루는 도서관 사서,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자, 실험을 하는 과학자 등을 계몽하고 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IMF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거품을 거둬내고 능력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DC**